

지난겨울 초미세먼지, 최근 5년간 최저

환경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석 발표 전국 평균 농도 21 $\mu\text{g}/\text{m}^3$...전년보다 15% 줄어 ' 좋음'일수 16일 증가... '나쁨'일수도 5일 감소

지난 겨울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역대 계절관리제 기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 $\mu\text{g}/\text{m}^3$ 으로, 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때의 24.6 $\mu\text{g}/\text{m}^3$ 비교해 약 15% 개선됐다.

추이를 보면 ▲1차 24.4 $\mu\text{g}/\text{m}^3$ ▲2차 23.7 $\mu\text{g}/\text{m}^3$ ▲3차 23.2 $\mu\text{g}/\text{m}^3$ ▲4차 24.6 $\mu\text{g}/\text{m}^3$ ▲5차 21.0 $\mu\text{g}/\text{m}^3$ 으로 역대 최저다.

특히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1 $\mu\text{g}/\text{m}^3$, 20.2 $\mu\text{g}/\text{m}^3$ 으로 나타났다. 4차 때는 2월 28.1 $\mu\text{g}/\text{m}^3$, 3월 27.1 $\mu\text{g}/\text{m}^3$ 이었다.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mu\text{g}/\text{m}^3$ 이하로 떨어지는 ' 좋음'일수도 4차와 비교했을 때 31일에서 47일로 무려 16일이 증가했다.

'나쁨'일수(36 $\mu\text{g}/\text{m}^3$ 이상)는 20일에서 15일로 5일 감소하는 등 환경부는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4차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불법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해온 결과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결한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은 4차 때보다 26곳 늘어난 392곳이었다.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

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4차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는 4차 대비 30%가량(1010건→706건) 줄었다. 이 밖에도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과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폐기물·잔재물을 총 750만톤(t)을 수거 처리했다.

여기에 기상여건도 좋았다. 4차와 비교해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니터링 등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순천경찰서-순천청년회의소, 업무협약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순천청년회의소(회장 성경원, 70여명)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참여치안 활성화를 위한 협업 관계 구축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무안경찰, 농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홍보 추진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2023년도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와 업무협약식 체결에 이어 소외 계층 포용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무안군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완도소방, 화재예방 합동캠페인 추진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완도여객선터미널 대합실에서 청명·한식 대비 군민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5일 전했다. 서부재난본부 송준표 기자



곡성소방,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5일 청명한식의 날을 맞아 곡성군에 위치한 동약산에서 소방공무원 및 곡성을 남는 의용소방대 포함 총 70여명과 함께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소방, 전통 사찰 및 암자 목조건화재 화재 예방 활동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5일 구례군 전통 사찰 및 암자를 대상으로 봄철 목조건화재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소방,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현장점검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봄철 기간(3~5월) 중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6개소(연면적 2,000㎡)를 방문하여 임시소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직장인 30.5% 직장 내 괴롭힘 겪어...15.6% 죽을 생각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30인 미만 사업장 심각 주52시간 초과 근무자, 괴롭힘 경험 41.3%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공공기관 종사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0.5%)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결과인 30.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305명에게 이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자 그중 15.6%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변했다.

계약직 직장인 A씨는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갑질119에 "계약직인데 정규직 하기 싫으며 자기가 사무실에 한다면만 하면 바로 짐 싸고 아웃이라고 협박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며 "계약직이라 불이익이 예상

돼서 참았다"고 전했다. 근무 시간이 긴 직장인일수록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은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장인 B씨는 "퇴근 시간 10분 전, 30분 전 바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고 정시 퇴근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난리가 난다"며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하며 압박한다"고 토로했다.

가장 흔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등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46.6%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응답자가 15.6%에 달했지만 대부분 신고를 하거나 치료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절반 이상(57.7%)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진료료 상담이 필요했

지만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50%에 달했고, 진료나 상담을 받은 이들은 6.2%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이유가 대다수였다.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 이상(52%)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고,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58%에 달했다. 더욱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40%였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고 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로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며, 적극적인 교육으로 일터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 헌금 갈취한 목사 징역형

공갈과 강요·감금 혐의로 기소

종교를 도구삼아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 종교 단체 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10일부터 2022년4월12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도 4명으로부터 6억1435만원을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해 회개 명목으로 헌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12월 신도 2명을 3주 동안 치유센터에 감금한 혐의와 2018년 7월 신도 3명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종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선욱기자



화홍문 앞에서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홍보

들이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